

## 용비어천가(龍飛御天歌)

### [제1장]

海東(해동) 六龍(육룡)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(천복)이시니  
古聖(고성)이 同符(동부)하시니

### [제2장]

불휘 기픈 남긴 브르매 아니뵘썩 곳도코 여름 하느니  
식미 기픈 므른 ㄹ므래 아니그츨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

### [제3장]

周國(주국) 大王(대왕)이 幽谷(빈곡)에 사르샤 帝業(제업)을 여르시니  
우리 始祖(시조) | 慶興(경흥)에 사르샤 王業(왕업)을 여르시니

### [제4장]

狄人(적인)스 서리에 가샤 狄人(적인)이 골외어늘 岐山(기산) 올므삼도 하늬쁘디시니  
野人(야인)스 서리에 가샤 野人(야인)이 골외어늘 德源(덕원) 올므삼도 하늬쁘디시니

### [제5장]

漆沮(칠저) ㄹ쌔 옴홀 後聖(후성)이 니르시니 帝業憂勤(제업우근)이 더러하시니  
赤島(적도) 안헛 옴홀 至今(지금)에 보습느니 王業(왕업) 艱難(간난)이 이러하시니

### [제6장]

商德(상덕)이 衰(쇠)히거등 天下(천하)를 맞드시릴썩 西水(서수)스 ㄹ시 저재 곧흐니  
麗運(여운)이 衰(쇠)히거든 나라홀 맞드시릴썩 東海(동해)스 ㄹ시 저재 곧흐니

### [제7장]

블근새 그를 브러 寢室(침실) 이페 안즈니 聖子革命(성자혁명)에 帝祜(제후)를 뵘스브니  
브야미 가칠 브러 증겟가재 연즈니 聖孫將興(성손장흥)에 嘉祥(가상)이 몬제시니

### [제8장]

太子(태자)를 하늬히 곱히샤 兄(형) ㄹ쁘디 일어시늘 聖孫(성손)을 내시니이다.  
世子(세자)를 하늬히 곱히샤 帝命(제명)이 느리어시늘 聖子(성자)를 내시니이다.

### [제9장]

奉天討罪(봉천토죄)실썩 四方諸侯(사방제후) | 몬더니 聖化(성화) | 오라샤 西夷(서이) 썩 모드니  
唱義班師(창의반사) | 실썩 千里人民(천리인민)이 몬더니 聖化(성화) | 기프샤 北狄(북적)이 썩 모드니

### [제10장]

一夫(일부) | 流毒(유독)홀썩 我后(아후)를 기드리스바 玄黃筐篚(현황광비)로 길헤 브라스브니  
狂夫(광부) | 肆虐(사학)홀썩 義旗(의기)를 기드리스바 簞食壺漿(단식호장)으로 길헤 브라스브니

### [제11장]

虞芮(우예) 質成(질성)히느로 方國(방국)이 해 모드나 至德(지덕)이실썩 獨夫受(독부수)르 썩기시니

威化振旋(위화진선) 하시는로 興望(흥망)이 다 묻지 않나 至忠(지충)이실찌 中興主(중흥주)를 세시니

[제12장]

五年(오년)을 改過(개과) 못하야 虐政(학정)이 날로 더욱찌 倒戈之日(도과지일)에 先考(선고)를 못 잊으시니  
천나라 讒訴(참소)를 드러 兪謀(홍모) | 날로 더욱찌 勸進之日(권진지일)에 平生(평생)을 못 잊으시니

[제13장]

말씨를 슬브리 하디 天命(천명)을 疑心(의심) 하실찌 꾸므로 피아시니  
놀애를 브르리 하디 天命(천명)을 모르실찌 꾸므로 알의시니

[제14장]

聖孫(성손)이 一怒(일노) 하시니 六百年(육백년) 天下(천하) | 洛陽(낙양)에 올므니이다  
聖子(성자) | 三讓(삼양)이시니 五百年(오백년) 나라히 漢陽(한양)에 올므니이다

[제15장]

揚子江南(양자강남)을 찌리샤 使者(사자)를 보내신들 七代之王(칠대지왕)을 뒤 마마리잇가  
公州(공주) | 江南(강남)을 저하샤 子孫(자손)을 마르치신들 九變之局(구변지국)이 사툼쁘디리잇가

[제16장]

逃亡(도망)에 命(명)을 미드며 놀애에 일흠 미드니 英主(영주)를 알피 내내 붓그리리  
을모려 남금 오시며 姓(성) 곁히야 員(원)이 오니 오늬나래 내내 웃브리

[제17장]

宮女(궁녀)로 놀라샤미 宮監(궁감)이 다시언마른 問罪江都(문죄강도)를 느치니잇가  
官妓(관기)로 怒(노) 하샤미 官吏(관리)의 다시언마른 肇基朔方(조기삭방)을 피아시니이다

[제18장]

驪山(여산) 役徒(역도)를 일하샤 지브로 도라오심제 열회 므스물 하늘히 달애시니  
셔를 使者(사자)를 찌리샤 마르를 건너심제 二百戶(이백호)를 어느 뒤 청하니

[제19장]

구든 城(성)을 모르샤 갓 길히 입더시니 せん 하나비를 하늘히 브리시니  
췌 한 도즈굴 모르샤 보리라 기드리시니 せん 할미를 하늘히 보내시니

[제20장]

四海(사해)를 년글 주리여 마르매 비 업거늘 얼우시고 췌 노기시니  
三韓(삼한)을 누물 주리여 마르래 비 업거늘 녀토시고 췌 기피시니

[제21장]

하늘히 일위시니 赤脚仙人(적각선인) 아닌들 天下蒼生(천하창생)을 니즈시리잇가  
하늘히 곁히이시니 누비중 아닌들 海東黎民(해동여민)을 니즈시리잇가

[제22장]

赤帝(적제) 니러나시릴찌 白帝(백제) 하 갈해 주그니 火德之王(화덕지왕)을 神婆(신파) | 알외스브니

黑龍(흑룡)이 혼 사래 주겨 白龍(백룡)을 살아내시니 子孫之慶(자손지경)을 神物(신물)이 슬쁘니

[제23장]

雙鵬(쌍조) | 혼 사래 빼니 絶世(절세) 英才(영재)를 邊人(변인)이 拜伏(배복)하스쁘니  
雙鵠(쌍작)이 혼 사래 디니 曠世(광세) 奇事(기사)를 北人(북인)이 稱頌(칭송)하스쁘니

[제24장]

늑몬 뜯 다르거늘 남그물 救(구)하시고 六合(육합)애도 精卒(정졸)을 자브시니  
얇은 뜯 다르거늘 나라해 도라오시고 雙城(쌍성)애도 逆徒(역도)를 平(평)하시니

[제25장]

德望(덕망)이 더러하실찌 가다가 도라올 軍士(군사) | ぞ갓과 黃袍(황포) 니피스쁘니  
忠誠(충성)이 이러하실찌 죽다가 살인 百姓(백성)이 아드넓과 袞服(곤복)니피스쁘니

[제26장]

東都(동도)애 보내어시늘 하리로 말이스븐들 이곤 더고대 後(후)애 날 다르리잇가  
北道(북도)애 보내어시늘 글볼로 말이스븐들 가삼 겨사매 오늘 다르리잇가

[제27장]

큰 화리 常例(상례) 아니샤 언즈바 濟世才(제세재)를 後人(후인)이 보스쁘니  
큰 사리 常例(상례) 아니샤 보시고 더디시나 命世才(명세재)를 即日(즉일)에 것그시니

[제28장]

員(원)의 지브 가샤 避仇(피구)홍 소년 마리 兩漢故事(양한고사)애 엇더하니잇고  
아바넛 뒤헤 셔샤 赴京(부경)홍 소년 마리 三韓今日(삼한금일)애 엇더하니잇고

[제29장]

漢德(한덕)이 비록 衰(쇠)하나 帝胃(제위) | 中興(중흥)하시랄찌 大耳兒(대이아)를 臥龍(와룡)이 돕스쁘니  
世亂(세란)을 救호려 나샤 奇偉(기위)하실찌 大耳相(대이상)을 詔使(조사) | 일큰즈쁘니

[제30장]

뒤헤는 모던 도죽 알피는 어드븐 길헤 업던 번게를 하늘히 불기시니  
뒤헤는 도던 중상 알피는 기픈 모세 열븐 어르물 하늘히 구티시니

[제31장]

전마리 현버늘 단들 三十年(삼십년) 天子(천자) | 어시니 모던 췌를 일우리잇가  
石壁(석벽)이 혼갓 스신들 數萬里(수만리)애 이미어시니 百仞虛空(백인허공)애 느리시리잇가

[제32장]

天爲建國(천위건국)하샤 天命(천명)을 느리오시니 亭上牌額(정상패액)을 세사를 마치시니  
天爲拯民(천위중민)하샤 天才(천재)를 느리오시니 藪中(수중) 담뱃를 스물살 마치시니

[제33장]

行宮(행궁)애 도즈기 들어 남그미 울어시늘 赴援設疑(부원설의)하샤 도즈기 도라가니

京都(경도)에 도즈기 드러 님그미 避(피)커시닐 先登獻捷(선등헌첩)흐샤 님금 도라오시니

[제34장]

물 깊고 빅 업건마른 하늘히 命(명)흐실씩 물론자히 건너시니이다  
城(성) 높고 드리 업건마른 하늘히 도복실씩 물론자히 느리시니이다

[제35장]

셔블 기벼를 알씩 흐복사 나사가샤 모던 도즈굴 물리시니이다  
스그鬪 軍馬(군마)를 이길씩 흐복사 물리조치샤 모던 도즈굴 자브시니이다

[제36장]

兄(형)이 디여 뵈니 衆賊(중적)이 좃거을 재 느려 티샤 두 같히 것그니  
므를 채터 뵈시니 三賊(삼적)이 좃줍거늘 길버서 쏘샤 세 사래 다 디니

[제37장]

셔블 賊臣(적신)이 잇고 흐부니 天命(천명)이실씩 썬딘 므를 하늘히 내시니  
나라해 忠臣(충신)이 업고 흐복사 至誠(지성)이실씩 여린 흘글 하늘히 구티시니

[제38장]

四征無敵(사정무적)흐샤 오샤샤 사르시릴씩 東(동)이 니거시든 西夷(서이) 브라스브니  
用兵如神(용병여신)흐샤 가샤샤 이기시릴씩 西(서)에 오나시든 東鄙(동비) 브라스브니

[제39장]

楚國(초국)옛 天子氣(천자기)를 行幸(행행)으로 마르시니 님금 므스미 귀 아니 어리시니  
鴨江(압강)옛 將軍氣(장군기)를 아모 爲(위)흐다 흐시니 님금 말쓰미 귀 아니 올흐시니

[제40장]

城(성) 아래 닐흔 살 쏘샤 닐흐너 모미 맞거늘 京觀(경관)을 땡르시니  
城(성) 우회 닐흔 살 쏘샤 닐흐너 느치 맞거늘 凱歌(개가)로 도라오시니

[제41장]

東征(동정)에 功(공)이 묻 이나 所掠(소략)을 다 노흐샤 歡呼之聲(환호지성)이 道上(도상)에 ㄹ득흐니  
西征(서정)에 功(공)이 일어늘 소획을 다 도로 주샤 仁義之兵(인의지병)을 遼左(요좌) | 깃스브니

[제42장]

西幸(서행)이 흐마 오라샤 角端(각단)이 말흐야늘 術士(술사)를 從(중)흐시니  
東寧(동녕)을 흐마 아스샤 구루미 비취여늘 日官(일관)을 從(중)흐시니

[제43장]

玄武門(현무문) 두 도터 흐 사래 마즈니 希世之事(희세지사)를 그려 뵈시니이다  
줄애산 두 놀이 흐 사래 빼니 天縱之才(천종지재)를 그려샤 아사볼까

[제44장]

노르셋 바오리실씩 물 우회 니서 티시나 二軍(이군) 鞞手(국수)뿐 깃그니이다

君命(군명)엿 바오리어늘 물 겨퇴 엿마<sub>2</sub>시니 九達(구달) 都人(도인)이 다 놀라스<sub>2</sub>븐니

[제45장]

가리라 흐리 이시나 長者(장자)를 브리시니 長者(장자) | 실씩 秦民(진민)을 깃기시니  
활 쏘리 하건마른 武德(무덕)을 아르시니 武德(무덕)으로 百姓(백성)을 救(구)흐시니

[제46장]

賢君(현군)을 내요리라 하늘히 駙馬(부마) 달애샤 두 孔雀(공작)일 그리시니이다  
聖武(성무)를 뵈요리라 하늘히 넘금 달애샤 열 銀鏡(은경)을 노흐시니이다

[제47장]

大箭(대전) 흐나라 突厥(돌궐)이 놀라스<sub>2</sub>븐니 어디 머리 威不及(위불급)흐리잇고  
片箭(편전) 흐나라 烏夷(도이) 놀라스<sub>2</sub>븐니 어디 구더 兵不碎(병불쇄)흐리잇고

[제48장]

굴형에 므를 디내샤 도즈기 다 도라가니 半(반)길 노편들 년기 다니리잇가  
石壁(석벽)에 므를 올리샤 도즈굴 다 자브시니 현번 뻘운들 누미 오르리잇가

[제49장]

셔블 도즈기 드러 넘그미 나갯더시니 諸將之功(제장지공)에 獨眼(독안)이 노프시니  
넘그미 나가려 흐샤 도즈기 셔블 드러니 二將之功(이장지공)을 一人(일인)이 일우시니

[제50장]

내 넘금 그리샤 後宮(후궁)에 드르싯제 하늬 벼리 눈 곧 디니이다  
내 百姓(백성) 어엿비 너기샤 長湍(장단)을 건너싯제 흰 므지게 히에 뻘니이다

[제51장]

軍容(군용)이 네와 다르샤 아늵고 물러가니 나샤오던텐 목숨 기르리잇가  
置陣(치진)이 늵과 다르샤 아스보디 나샤오니 물러가던텐 목숨 므츄리잇가

[제52장]

請(청) 드른 다대와 노니샤 바늘 아니 마치시면 어비 아드리 사르시잇가  
請(청)으로 온 예와 싸호샤 투구 아니 밧기시면 나랏 小民(소민)을 사르시리잇가

[제53장]

四海(사해)를 平定(평정)흐샤 길 우희 糧食(양식)니저니 塞外北狄(새외북적)인들 아니 오리잇가  
四境(사경)을 開拓(개척)흐샤 섬 안헤 도죽 니저니 徼外南蠻(요외남만)인들 아니 오리잇가

[제54장]

禮義(예의)를 앓기샤 兵馬(병마)를 머추어시니 徼外南蠻(요외남만)인들 아니 오리잇가  
才勇(재용)을 앓기샤 金刃(금인)을 브려시니 徼外北狄(요외북적)인들 아니 오리잇가

[제55장]

逐鹿未擒(축록미기)에 燕人(연인)이 向慕(향모)흐스<sub>2</sub>븐 梟騎(효기) 보내야 戰陣(전진)을 돕스<sub>2</sub>븐니

潛龍(잠룡) 未飛(미비)에 北人(북인)이 服事(복사)하스븐 弓劍(궁검)츠습고 左右(좌우)에 좃즈븐니

[제56장]

聲教(성교) | 너브실씩 窮髮(궁발)이 編戶(편호) | 러니 革命(혁명)흔 後(후)에 厚恩(후은) 그리스븐니  
威惠(위혜) 너브실씩 被髮(피발)이 冠帶(관대)러니 오눔아래 至德(지덕)을 우습느니

[제57장]

세 살로 세 썰 쏘시니 府中(부중)엿 邀使(요사) | 奇才(기재)를 과하스븐니  
흔 살로 두 썰 쏘시니 冢 百姓(백성)이 큰 功(공)을 일우스븐니

[제58장]

말이습거늘 가샤 冢 軍馬(군마) 두시고 네 사름 드리샤 석슬 치자브시니  
내 니거지이다 가샤 山(산) 미퇴 軍馬(군마) 두시고 온 사름 드리샤 기르말 밧기시니

[제59장]

東都(동도)엿 도즈기 威武(위무)를 니기 아스븐 二隊玄甲(이대현갑)을 보습고 저흐니  
東海(동해)엿 도즈기 智勇(지용)을 니기 아스븐 一聲白螺(일성백라)를 듣좁고 놀라니

[제60장]

出奇(출기) 無端(무단)하실씩 도즈기 알폴 디나샤 도즈기 뜯 몰라 몬 나니  
變化(변화) | 無窮(무궁)하실씩 도즈기 스실 디나샤 도즈기 뜯 몰라 모드니

[제61장]

일후믈 놀나스바늘 ㅎ북사 뒤헤 셔샤 手射數人(수사수인)하샤 五千賊(오천적) 이기시니  
일후믈 저썻바늘 ㅎ북사 뒤헤 나샤 手斃無筭(수폐무산)하샤 百艘賊(백소적) 자브시니

[제62장]

도즈글 나샤가 보샤 일후믈 알외시니 聖武(성무) | 어시니 나아오리잇가  
도즈기 겨신딜 무러 일후믈 서썻븐니 天威(천위)어시니 드러오리잇가

[제63장]

百步(백보)엿 물채 쏘샤 群豪(군호)를 뵈여시늘 陰謀(음모)를 니즈니이다  
百步(백보)엿 여름 쏘샤 衆賓(중빈)을 뵈여시늘 慶爵(경작)을 받즈븐니이다

[제64장]

天下(천하) 英雄(영웅)이 度量(도량)에 다 드스볼씩 叛(반)하느 노물 부러 노흐시니  
世上(세상) 豪傑(호걸)이 範圍(범위)에 몬 나스볼씩 이기실 算(산)을 짐죽 업게하시니

[제65장]

苑囿(원유)엿 도를 티샤 長史(장사) 듣즈븐 마리 挺世氣象(연세기상)이 엇더하시니  
峻阪(준판)엿 놀을 쏘샤 麾下(휘하) 듣즈븐 마리 盖世氣象(개세기상)이 엇더하시니

[제66장]

大義(대의)를 불기실씩 侯國(후국)이 오습더니 輕士善罵(경사선매)하샤 侯國(후국)이 背叛(배반)하니

大勳(대훈)이 이르시럴찌 人心(인심)이 묻죽더니 禮士溫言(예사온언)하샤 人心(인심)이 굳죽보니

[제67장]

가룻 ㅁ새 자겨늘 밀므리 사으리로디 나가샤 ㅁㅁ니이다  
섬 안해 자쌌제 한비 사으리로디 뷘어샤 ㅁㅁ니이다

[제68장]

가룻 ㅁ 아긴 말이샤 밀므를 ㅁㅁ시니 하늘히 부러 ㅁ물 ㅁ시니  
한비를 아니 그치샤 날므를 외오시니 하늘히 부러 우릴 ㅁ시니

[제69장]

드르헤 龍(용)이 싸호아 四七將(四七將)이 일우려니 오라 혼들 오시리잇가  
城(성) ㅁ기 브리 비취여 十八子(십팔자) | 救(구)하시려니 가라 혼딜 가시리잇가

[제70장]

天挺英奇(천연영기)하샤 安民(안민)을 爲(위)하실찌 六駿(육준)이 應期(응기)하야 나니  
天錫勇智(천석용지)하샤 靖國(정국)을 爲(위)하실찌 八駿(팔준)이 應時(응시)하야 나니

[제71장]

元良(원량)을 무우리라 垂象(수상)으로 하스븐니 庸君(용군)이신들 天性(천성)은 ㅁㅁ시니  
僞姓(위성)을 구류리라 親朝(친조)를 請(청)하스븐니 聖主(성주) 실찌 帝命(제명)을 아르시니

[제72장]

獨夫(독부)를 하늘히 니즈샤 功德(공덕)을 國人(국인)도 ㅁㅁ거니 漢人(한인) ㅁㅁ미 엇더하리잇고  
하늘히 獨夫(독부)를 브리샤 功德(공덕)을 漢人(한인)도 ㅁㅁ거니 國人(국인) ㅁㅁ미 엇더하리잇고

[제73장]

生靈(생령)이 凋喪(조상)홀찌 田租(전조)를 고티시니 七姓亂後(칠성난후)에 致治(치치)를 爲(위)하시니  
寇攘(구양)이 毒痛(독통) | 어늘 田制(전제)를 고티시니 僞氏黜後(위씨출후)에 中興(중흥)을 위하시니

[제74장]

天倫(천륜)을 姦臣(간신)이 하스바 中土心得(중토심득)다 혼들 賢弟(현제)를 매 니즈시리  
天意(천의)를 小人(소인)이 거스러 親王兵(친왕병)을 請(청)하들 忠臣(충신)을 매 모르시리

[제75장]

突厥(돌궐)이 入寇(입구)하나 威名(위명)을 저스바 戰鬪之計(전투지계)를 아니 드르니  
威靈(위령)이 머르실찌 女直(여직)이 來庭(내정)하야 爭長之言(쟁장지언)을 아니 거스니

[제76장]

宗室(종실)에 鴻恩(홍은)이시며 모딘 相(상)을 니즈실찌 千載(천재) 아래 盛德(성덕)을 슬븐니  
兄弟(형제)에 至情(지정)이시며 모딘 ㅁ를 니즈실찌 오눔나래 仁俗(인속)을 일우시니

[제77장]

ㅁ ㅁ 仇讎(구수) | 라커늘 日月之明(일월지명)이실찌 다시 ㅁ샤 富庶(부서)를 보시니

늑든 주구려커늘 天地之量(천지지량)이실찌 다시 사르샤 爵祿(작록)을 주시니

[제78장]

嚴威(엄위)로 처섬 보샤 迺終(내종)에 殊恩(수은)이시니 뉘 아니 좃좁고져 흐리  
赤心(적심)으로 처섬 보샤 迺終(내종)내 赤心(적심)이시니 뉘 아니 스랑흐스븐리

[제79장]

始終(시종)이 다르실찌 功臣(공신)이 疑心(의심)하니 定鼎無幾(정정무기)에 功(공)이 그즈니이다  
始終(시종)이 그트실찌 功臣(공신)이 忠心(충심)이니 傳祚萬世(전조만세)에 功(공)이 그즈리잇가

[제80장]

武功(무공)뿐 아니 위흐샤 선비를 아라실찌 鼎峙之業(정치지업)을 세시니이다  
討賊(토적)이 겨를 업스샤디 선비를 드스실찌 太平之業(태평지업)이 빛나시니이다

[제81장]

千金(천금)을 아니 앓기샤 글冊(책)을 求(구)하시니 經世度量(경세도량)이 크시니이다  
聖性(성성)을 아니 미드샤 學問(학문)이 기쁘시니 創業規模(창업규모) | 머르시니이다

[제82장]

허근 선비를 보시고 御座(어좌)에 니르시니 敬儒之心(경유지심)이 엇더하시니  
늘근 선비를 보시고 禮貌(예모)로 꾸르시니 右文之德(우문지덕)이 엇더하시니

[제83장]

君位(군위)를 보비라 홀찌 큰 命(명)을 알외요리라 바름 우회 金塔(금탑)이 소스니  
자호로 制度(제도) | 날찌 仁政(인정)을 맞도리라 하늘 우회 金尺(금척)이 느리시니

[제84장]

넘그미 賢(현)커신마른 太子(태자)를 묻 어드실찌 누븐 남기 니러셔니이다  
나라히 오라건마른 天命(천명)이 다아갈찌 이븐 남기 새 뉘 나니이다

[제85장]

方面(방면)을 몰라 보시고 벼스를 도도시니 하늘 므스물 뉘 고티스븐리  
讖文(참문)을 몰라 보겨늘 나랏 일홈 그르시니 天子(천자)ㅅ 므스물 뉘 달애스븐리

[제86장]

여섯 놀이 디며 다섯 가마괴 디고 빛근 남글 느라 나마시니  
石壁(석벽)에 수멧던 네넷글 아니라도 하늘 뜰뉘 뉘 모르스븐리

[제87장]

물 우회 대버물 혼소노로 티시며 싸호는 한쇼를 두 소내 자보시며  
드리에 떠딜 므를 년즈시 치혀시니 聖人(성인) 神力(신력)을 어느 다 슬븐리

[제88장]

마순 사스믹 등과 도즈기 입과 눈과 遮陽(차양)ㄱ 세 쉼 네도 잇더신가

곳본 위을 모디 늘이시니 聖人(성인) 神武(신무) | 엇더하시니

[제89장]

숯바을 닐굽과 이븐 나모와 투구 세사리 네도 쯔 잇더신가  
東門(동문) 밧기 독소리 것그니 聖人(성인) 神功(신공)이 쯔 엇더하시니

[제90장]

두 兄弟(형제) 쯔 하건마른 藥(약)이 하늘 계우니 아바님 지흐신 일흠 엇더하시니  
두 버디 빅 배안마른 빅미 하늘 계우니 어마님 드르신 말 엇더하시니

[제91장]

아바님 이받즈흠제 어마님 그리신 늡므를 左右(좌우) | 하스빅 아바님 怒(노)하시니  
아바님 뷔스빅싫제 어마님 여희신 늡므를 左右(좌우) | 슬쓰빅 아바님 일크르시니

[제92장]

至孝(지효) | 더러흐실씨 늡몬 즐기느 나를 아니 즐겨 聖經(성경)을 니르시니  
大孝(대효) | 이러흐실씨 늡몬 밧느 오슬 아니 바사 禮經(예경)을 從(종)하시니

[제93장]

아바님 梓宮(재궁)을 드스샤 高平(고평)에 아니 가시면 配天之業(배천지업)이 구드시리잇가  
어마님 山陵(산릉)을 드스샤 栗村(울촌)에 도라오시면 建國之功(건국지공)을 일우시리잇가

[제94장]

내 가리이다 말이나 宗廟(종묘) 爲(위)하시야 가시니 紹興之命(소흥지명)을 金人(금인)이 모르니  
네 가사 하리라커시늘 社稷(사직) 爲(위)하야 가시니 忠國之誠(충국지성)을 天子(천자) | 아르시니

[제95장]

처섬 와 傲色(오색) 잇더니 濟世英主(제세영주) | 실씨 마쯔비에 믱스물 놀라니  
간 고대 禮貌(예모) 업더니 蓋天英氣(개천영기)실씨 이바디에 머리를 좇스빅니

[제96장]

孝道(효도)흠 썩리 그를 어엿비 너겨 보샤 漢家仁風(한가인풍)을 일우시니이다  
孝道(효도)흠 아들 우루물 슬피 너겨 드르샤 聖祖仁政(성조인정)을 도복시니이다

[제97장]

將軍(장군)도 하건마른 豁達大略(활달대략)이실씨 狂生(광생)이 듣즈바 同里(동리)를 브터 오니  
宗親(종친)도 하건마른 隆準龍顏(용준용안)이실씨 書生(서생)이 보스바 同志(동지)를 브터 오니

[제98장]

臣下(신하) | 말 아니 드리 正統(정통)에 有心(유심)홀씨 山(산)이 草木(초목)이 軍馬(군마) | 드킵니이다  
님굽 말 아니 듣즈바 嫡子(적자)스기 無禮(무례)홀씨 셔불 뷔 길헤 軍馬(군마) | 뷔니이다

[제99장]

아즈미를 저하시 讓兄(양형) ㄱ 프들 내신들 討賊之功(토적지공)을 늘 미르시리

朝臣(조신)을 거스르샤 讓兄(양형)ㄱ 쁜 일우신들 定社之聖(정사지성)스기 ㄴ위 아니 오스블리

[제100장]

물 우횡 龍(용)이 江亭(강정)을 向(향)흐스블니 天下(천하) | 定(정)홀 느지르샷다  
집 우횡 龍(용)이 御床(어상)을 向(향)흐스블니 寶位(보위) 트실 느지르샷다

[제101장]

天下(천하)애 功(공)이 크샤디 太子(태자)ᄇ 位(위) 다라거시늘 새벼리 나직 도드니  
宗社(종사)애 功(공)이 크샤디 世子(세자)ᄇ 位(위) 뷔어시늘 赤祿(적침)이 바미 비취니

[제102장]

시름 므슴 업스샤디 이 지비 자려흐시니 하늘히 므스물 뉘우시니  
모맷 病(병) 업스샤디 더 지비 가려흐시니 하늘히 病(병)을 느리오시니

[제103장]

앞이 모딜오도 無相猶矣(무상유의)실찌 二百年(이백년) 基業(기업)을 여르시니이다  
兄(형)이 모딜오도 不宿怨焉(불숙원언)이실찌 千萬世(천만세) 厚俗(후속)을 일우시니이다

[제104장]

建義臣(건의신)을 할어늘 救(구)호디 몬 사르시니 모매 브른 일로 仁心(인심) 몬 일우시니  
開國臣(개국신)을 할어늘 救(구)호야 사르시니 社稷功(사직공)을 헤샤 聖心(성심)을 일우시니

[제105장]

제 님금 背叛(배반)호야 내 모물 救(구)흐스바늘 不賞私勞(불상사로)호샤 後世(후세)ㄴ ㄴ라치시니  
제 님금 아니 니저 내 命(명)을 거스스바늘 不忘公義(불망공의)호샤 嗣王(사왕)을 알외시니

[제106장]

忠臣(충신)을 외오 주거늘 惡惡(악악) 므스미 크샤 節鉞(절월)을 아니 주시니  
義士(의사)를 올타 과하샤 好賢(호현) 므스미 크샤 官爵(관작)을 아니 앓기시니

[제107장]

滿朝(만조)히 두쇼서커늘 正臣(정신)을 올타 흐시니 十萬(십만) 僧徒(승도)를 一擧(일거)애 罷(파)흐시니  
萬國(만국)히 즐기거늘 聖性(성성)애 외다터시니 百千佛刹(백천불찰)을 一朝(일조)애 革(혁)흐시니

[제108장]

수메셔 드르시고 民望(민망)을 일우로리라 戎衣(융의)를 니피시니이다  
病(병)으로 請(청)흐시고 天心(천심)을 일우오리라 兵仗(병장)으로 도복시니이다

[제109장]

ㄴ리 病(병)이 기피 山脊(산척)애 몬 오르거늘 君子(군자)를 그리샤 金甕(금뢰)ㄴ 브수려 흐시니  
ㄴ리 스를 마자 馬廐(마구)애 드러오나늘 聖宗(성종)을 뵈셔 九泉(구천)애 가려 하시니

[제110장]

四祖(사조) | 便安(편안)히 몬 겨샤 현 고들 올마시뇨 몇 間(간)ㄴ 지비 사르시리잇고

九重(구중)에 드르샤 太平(태평)을 누리실제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1장]

豺狼(시랑)이 構禍(구화) | 어늘 一間(일간) 茅屋(모옥)도 업사 움 무더 사르시니이다  
廣廈(광하)애 細氈(세진) 퍼고 黼座(보좌)애 안즈샤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2장]

王事를 爲커시니 行陣을 조츠샤 不解甲이 현나리신들 알리  
莽龍衣(망룡의) 袞龍袍(곤용포)애 寶玉帶(보옥대) 썩샤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3장]

拯民(증민)을 爲(위)커시니 攻戰(공전)애 든니샤 不進饜(불진선)이 현삐신들 알리  
南北珍羞(남북진수)와 流霞玉食(유하옥식) 바드샤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4장]

大業(대업)을 누리오리라 筋骨(근골)을 몬져 긋고샤 玉體創痍(옥체창반)이 혼두 곧 아니시니  
兵衛(병위) 儼然(엄연)커든 垂拱臨朝(수공임조)흐샤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5장]

날 거승 도즈글 好生之德(호생지덕)이실씩 부러 저히샤 살아 자브시니  
願指如意(이지여의)흐샤 罰人刑人(벌인형인)흐실제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6장]

道上(도상)애 僵尸(강시)를 보샤 寢食(침식)을 그쳐시니 旻天之心(민천지심)애 그 아니 뜬디시리  
民瘼(민막)을 모르시면 하늘히 브리시느니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7장]

敵王所愾(적왕소개)흐샤 功蓋一世(공개일세)흐시나 勞謙之德(노겸지덕)이 功(공)을 모르시니  
佞臣이 善諛(선유)흐야 驕心이 나거시든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8장]

多助之至(다조지지)실씩 野人(야인)도 一誠(일성)이어나 國人(국인) 뜬들 어느 다 슬브리  
님금 德(덕) 일흐시면 親戚(친척)도 叛(반)흐느니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19장]

兄弟變(형제변)이 이시나 因心則友(인심칙우) | 실씩 허므를 모르더시니  
易隙之情(역극지정)을 브터 姦人(간인)이 離間(이간)커든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20장]

百姓(백성)이 하늘허어늘 時政(시정)이 不恤(불홀)홀씩 力排群議(역배군의)흐샤 私田(사전)을 고티시니  
征歛(정감)이 無藝(무예)하면 邦本(방본)이 곧 여리느니 이 뜬들 닛디 마르쇼셔

[제121장]

내그에 모달언마른 제 님금 爲(위)타 흐실씩 罪(죄)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

흐믈며 袞職(곤직) 돕스보려 面折廷爭(면절정쟁)커든 이 쁘들 넛디 마르쇼셔

[제122장]

性與天合(성여천합)흐샤디 思不如學(사불여학)이라 흐샤 儒生(유생)을 親近(친근)흐시니이다  
小人(소인)이 固寵(고충)호리라 不可令閑(불가령한)이라커든 이 쁘들 넛디 마르쇼셔

[제123장]

讒口(참구) | 만흐야 罪(죄) 흐마 일리러니 功臣(공신)을 살아 救(구)흐시니  
工巧(공교)흐 하리 甚(심)흐야 貝錦(패금)을 일우려커든 이 쁘들 넛디 마르쇼셔

[제124장]

洙泗正學(수사정학)이 聖性(성성)에 불ㄴ실씩 異端(이단)을 排斥(배척)흐시니  
裔戎邪說(예용사설)이 罪福(죄복)을 저히습거든 이 쁘들 넛디 마르쇼셔

[제125장]

千世(천세) 우회 미리 定(정)흐산 漢水北(한수북)에 累仁開國(누인개국)흐샤 卜年(복년)이 冢업스시니  
聖神(성신)이 니스샤도 敬天勤民(경천근민)흐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 
넘금하 아르쇼셔 洛水(낙수)에 山行(산행)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